

박중석 작가가 故 박은용 작가의 삶을 20m 작품에 풀어놓은 '비가(悲歌)! 바람이 전하는 말' (부분).



靛靛통오케스트라, 인도네시아 순회공연 성료

한·아세안 우호증진·문화교류...靛靛문화전당 창제작 활용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ATO)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순회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으로 한·아세안 우호 증진과 문화 교류는 물론 아시아문화전당 공동 창제작 활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아시아문화원 (원장 이기표)과 함께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ATO 순회공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초청에 따라 지난 6일 자카르타 발라이 사르비니 극장에서 개최한 '2019 코리아 페스티벌 인 아세안' 공연을 시작으로 7일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식' 공연, 12일 '2019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이 호평 속에 갈무리됐다.

이번 공연에서 ATO는 국악인 김산옥과 사물광대와 협연한 '배 띄어라', '내사랑 뭉롱', '신모듬' 등 우리 국악과 인도네시아 발리 예술가들과 협연한 곡 'Yamko Rambe Yamko...Janger' '전통 민요 메들리'를 선보였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짧은 악구 11개를 결합한 곡 'One Asia'가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으며 모든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앵콜 세레가 이어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인도네시아 발리 순회 공연 장면.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인문도시 피렌체를 이해하다

'인문예술도시기행' 17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사)인문지행이 진행하는 '49회 인문 예술도시기행'이 17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도시공간에 담긴 인문학과 예술의 정신과 가치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획으로 인문도시 피렌체의 공간을 통해서 나타난 인문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 건축을 살펴보고 우피치 미술관 소장 명화들을 감상하며 명화 속에 스며 든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를 살펴본다.

감상할 작품은 전성기 르네상스 미술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검은방울새와 성모'와 '레오 10세의 초상', 베네치아파의 대표화가 티치아노의 '플로라', 피오렌티노의 '성모자와 네 성인', '악기를 연주하는 아기 천사', 브루치노의 '코시모 1세 데 메디치의 초상화' 등이다

또 피렌체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우피치 미술관과 베기오 다리, 인노첸티 교아원, 성 요한 세례당과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등도 만난다.

이번 기획의 특징은 르네상스의 의미와 가치를 도시의 공공 건축과 예술을 통해

1992년 대학원 석사논문인 '49회 남회화사에 조명되지 않은 서화가들을 꾸준히 조명해 온 박 작가는 학포 양평손을 다룬 '부러진 대나무', 염재 송태희의 삶과 예술을 정리한 '세한을 기억하고'를 펴냈으며 두 책 출간 당시에도 그들의 삶을 담은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오픈식 및 출판기념회는 20일 오후 4시 열린다. 일요일, 공휴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라파엘로 작 '검은방울새와 성모'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으며, 참가비는 없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독한 농부화가' 박은용의 일생을 보다

올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석현(石峴) 박은용(1944~2008) 10주기 특별전은 '비운의 천재화가', '고독한 농부화가'로 불렸던 그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취재 당시, 석현의 후배로 그와 30년 넘게 인연을 맺으며 그의 평전을 준비중이었던 한국화가 석주(石洲) 박중석 작가와 동행했다. 박 작가는 언제나 비주류였던 그를 '영혼이 맑은 사람', '성자'라 표현했다.

했고 삶을 옥죄었던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따른 고독과 불안, 절망이 함께였다. 오랫동안 석현의 삶과 작품을 헤아리며 평전을 준비해온 박중석 작가가 '석현 박은용-검은 고독, 푸른 영혼(조인출판사)'을 펴냈다. 더불어 박은용의 일생을 파노라마식으로 담아낸 20m 대작 '비가(悲歌)! 바람이 전하는 말'을 선보이는 동명의 전시(20일~12월12일 갤러리 생각상자)도 개최한다.

서울 발표전으로 환단에 각인 된 뒤 병원 생활과 재혼 시기를 모색하고, 그리고 두 강화실 짓기와 사명시장 연작을 비롯해서 생을 마친 2000년까지를 정작기로 구분했다.

광주시 동구 지원동 생각상자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내 걸리는 '비가, 바람이 전하는 말'은 장지에 수묵담채로 그려낸 대작이다. 작품은 책에서 언급한 인생 3분기를 토대로 제작했다. 해맑은 얼굴로 고향 진도 울돌목을 건너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작품은 어린시절, 대학시절, 서울 전시 등 석현의 희로애락을 표현해 냈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 석현의 작품을 재해석해 채워넣었다.



박은용 작 '자화상'

박 작가는 책에서 "박은용의 삶은 운명적으로 불우한 일생이었지만 침묵으로 자존의 길을 지키며 치열한 예술의 족적을 남겼다"며 "홀로 홀로 돌을 이용해 수년간 지은 화순 두강마을 작업실 언덕에 묻힌 그는 지금도 세상의 마음밭에 심어놓은 작품으로 따뜻한 정감의 말을 나누고 있다"고 말한다.

석현이 살아 있을 때부터 술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수집해온 박 작가가 집필한 이번 책은 무엇보다 충실한 아카이빙이 눈에 띈다. 석현의 대표 작품을 비롯해 육필 원고, 강연군-배동환 화백 등 동료-가족과 나눈 편지와 엽서, 그의 삶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사진 등을 빠짐없이 쫓고 그의 일생을 촘촘히 기록해 나갔다. 다른 전문가들이 석현을 연구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다.

450페이지 울썸러로 제작된 평전은 박은용의 삶과 예술을 3부로 나눠 기술했다. 6·25전쟁으로 파괴되어버린 어린 시절과 대학·교직 생활을 습격기로, 1983년

진도 출신으로 조대부고, 서라벌예대 회화과에서 공부한 석현은 오랫동안 탐구했던 목판법(木版法)·먹을 중점시켜 갈필의 흔적이 겹쳐지도록 세필을 운용하는 화법)이 회화에 알려지며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가족과 살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꾸준히 화폭에 담아왔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

5명의 작가와 '오색의 찬연' 17일까지 향담갤러리 초대전

광주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향담갤러리 2주년 기념 초대전이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오색의 찬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채색화 작가 5명을 초청했다. 현암 홍정호 작가는 번짐의 효과를 살

린 수묵 담채로 다채로운 풍경을 추상적 느낌에 담아 표현한 '가을에 젖다' 등을 선보이며 광주미협 회장을 역임한 서예가 금초 정광주 작가는 한문 서예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서양화가 문명호 작가는 화사한 꽃 무리가 인상적인 '향연'과 동백꽃 등을 선

보이며 문인화가 정암 이병오 작가는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찻잔, 한글 서예가 어우러진 '곧은 절개'를 내걸었다.

갤러리 대표를 맡고 있는 향담 이성임 작가는 초록빛의 오묘한 색감이 인상적인 '접시꽃' 등의 작품을 전시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중석 작가, '석현 박은용' 출간 450페이지 울썸러 평전 20일부터 갤러리생각상자서 '비가! 바람이 전하는 말' 전 석현 삶 담은 20m 대작 전시



이성임 작 '접시꽃'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